



2002 책마당 큰잔치 막내력

문화부주최 덕수궁서 5일간 성황 고인쇄체험관 최고 인기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독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2 책마당 큰잔치'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덕수궁 경내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주

관하고 대한인쇄문화협회 교보문고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소년단체협의회 온라인서점협회가 후원했다.

2일 오후 2시에는 김성재문화관광부장관 이정일대한출판



◀ 김성재 문화관광부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인쇄역사관을 돌아보고 있는 김성재 장관과 내빈들.



▲ 나도 한번~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구성한 고인쇄체험관에 학생들이 행사기간내내 만원시례를 빚었다.

문화협회회장 민재기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이심한국잡지협회회장 김경희전자출판협회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어린이 10명과 함께 개막을 알리는 낙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고 1억5천만원과 민자 5천만원이 투입되어 주제에 부합하는 테마별로 9개의 전시관이 구성됐다.

도서전시코너에는 신간과 구간명저, 북한출판물, 우수 아동청소년도서, 유명인사 추천도서, 전자책, 점자도서, 우수

고인쇄를 체험하고 있다. ▶ 김성재장관이 민재기인쇄회장의 안내로 인쇄체험관에서



잡지, 인터넷서점, 인쇄역사관 등이 마련됐고 이벤트관에는 책아 놀자, 작가가 그리는 세상속으로, 내손으로 인쇄를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간과 구간명저 코너에서는 최근 발행된 신간과 구간 명저를 전시, 책의 역할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책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코너에서는 책을 구입해 수해지역에 전달하는 뜻깊은 이벤트도 이루어 졌다.



▲ 박문석 차관이 민재기 인협회장의 안내로 인쇄역사관을 돌아보고 있다.

북한출판물 코너에는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를 전시하여 우리 도서와 비교해 보도록 해 이질화되어 있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수아동청소년도서 코너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우수 아동도서를 선별하여 전시함으로써 창작력을 북돋우고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유명인사 추천도서 코너에서는 사회 저명인사의 추천도서를 전시하여 책과 항상 가까이 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했다.

전자책 코너에서는 정보전달 및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자출판물을 소개하고 직접 시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점자도서 코너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를 소개했으며 우수잡지 코너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잡지를 전시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꾸민 인쇄역사관에는 인쇄연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쇄종주국임을 알리고 그 배경을 판넬을 통해 소개했다. 이어 현대의 인쇄와 특수인쇄, 미래인쇄 상을 소개해 지식 정보의 핵심이며 첨단산업인 인쇄문화를 널리 알렸다.

이벤트관 '책아 놀자' 코너에서는 옛날의 책읽기 풍속과 책과 관련된 다크종이 인형을 전시했다.



'작가가 그리는 세상속으로'에서는 날짜별로 한명씩 작가를 초대하여 사인회와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의 최고 인기코너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구성한 고인쇄체험관. 서울인쇄정보조합의 협조로 현존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때 한국의 상징물로 기증한 월인천강지곡 인쇄동판, 훈민정음 등의 활자로 인쇄체험관을 구성했는데 이 코너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일 수천명씩 몰려 첫날 두명이었던 도우미가 7명으로 증원되기도 했다.

고인쇄체험관은 공중파 및 케이블텔레비전에 모두 방영되고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들이 대거 몰려 인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창준국장〉